

19세기 불란서 문학사조

洪 承 五

(불문학과 교수)

I. 서 언

불란서에서는 절대군주 루이 14세가 서거한 후에 18세기 거의 전세기에 걸쳐 서서히 붕괴의 길을 걸어가던 이른바 구체제는 1789년의 대혁명으로 막을 내리고 19세기에는 시민사회가 성립되어가는 격동이 계속된다. 18세기말 혁명기의 공포정치에 뒤이은 집정정부(1795~1804),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제위에 오름으로써 시작되는 제 1 제정(1804~1815), 그의 실각에 따른 왕정복고(1815~1830), 공화파 부르조아지가 정치적승리를 쟁취한 7월혁명과 그 결과로 수립된 루이 필립의 7월왕정(1830~1848), 2월혁명(1848)으로 세워졌으나 단명으로 끝난 제 2 공화국(1848~1851),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이 나폴레옹의 친위 쿠데타로 수립된 제 2 제정(1851~1870), 파리코뮌과 제 3 공화국의 수립(1871)과 같이 무려 세차례의 혁명과 세차례의 공화체제, 두차례의 왕정복고와 두차례의 제정 등 얼치락 뒤치락하는 정치적인 변전을 거듭하기는 했으나, 19세기 불란서의 사회적 실권을 장악한 것은 이제 국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대은행가를 정점으로 하는 상층 부르조아지이다. 봉건제도가 붕괴한 후 17세기부터 서서히 부(富)를 축적하면서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한 토대를 착실히 쌓아가던 부르조아지는, 왕권의 취약한 지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강력한 대립세력으로 존재해 온 전통적 지배계층인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던 절대왕권의 요구에 부합하는 존재로 인정되기에 이르렀고, 18세기에는 더욱 실력을 축적해왔는데 대혁명이 일어나자 일거에 그 힘을 분출하여 마침내 1830년대부터는 사회의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외된 중·하층 부르조아지는 그들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이 불란서에도 전파되면서 철도가 부설되는 등 날로 진전되자 기계가 인력과 대체되고 그 결과 빈곤한 노동자의 수를 증가시켜 제 4의 계급인 노동계급을 형성케 하여, 벌써 1840년대부터는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분화와 대립의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또 한편으로 국민의 기층을 이루는 농민은 1850년대에 들어서도 불란서 산업인구의 태반이라 해도 좋을만한 비율인 65%를 차지하면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흉작에 시달린다. 이러한 모순과 갈등이 2월혁명 등의 위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19세기의 문학도 이렇듯 변전을 거듭하는 사회정세를 반영하여 시민문학으로서의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하여 몇 개의 큰 변화를 거치면서 여러 유파가 교체한다. 그 주된 흐름은 잘 알려진바와 같이 전반기의 낭만주의, 후반기에는 시민문학의 가장 유력한 장르로 성장한 소설에서의 사실주의 및 자연주의, 그리고 시에서의 상징주의 등이다. 그 외에도 당연히 고답파의 이름이 열거되어야 하겠으나 그것은 상징주의와의 관련하에서 향후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 각 문학유파 내지 사조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을만한 확연한 구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이 전개된 시기가 중첩되기도 하고 또 내적으로도 그 특질의 일부가 서로 겹쳐있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이 다채로운 문학사조들을 그 대표적인 특징만 간추려 고찰한다 해도 방대한 분량의 지면을 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한된 지면에서는 우선 19세기 전반에 전개되고 그 절정에 도달했던 낭만주의만을 다루고 여타의 사조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불란서 문학에서의 낭만주의는 일반적으로 스탈부인, 샤토브리앙을 직접적인 선구자로 하여 1820년대에 이른바 낭만파 시인들에 의해 일어나서 1850년까지 약 30년간에 걸쳐 전개된 새로운 문학운동을 가리킨다. 그것은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초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문단을 지배한, 이성과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고전주의 문학전통에 대항하여 감성과 상상력을 존중하는 비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경향이 내용과 형식의 혁신을 표방하고 새바람을 일으킨 운동이었다. 그중 몇가지 특징 또는 낭만주의가 지향하던 몇몇 이상은 낭만주의 문학운동의 종말 이후 19세기 후반 또는 20세기까지도 여전히 여러 문학활동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토록 낭만주의가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V.L. 소니에처럼 1830년부터 1930년까지를 낭만주의의 시기로 보는 문학사가도 있다.¹⁾ 그런데 낭만주의는 고전주의 문학전통과 어느 시점에서 명확한 구획선을 그으면서 단절하여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고전주의 지배하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서서히 배태되고 성장해간 여러 요인들이 하나의 거센 흐름으로 모여들어 고전파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벌인 끈질긴 항쟁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것이다. 그러기에 낭만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태시키고 탄생케 한 배경과 그것이 확립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주요한 특징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II. 배 경

1789년의 불란서대혁명은 정치 사회적으로는 글자 그대로 18세기 불란서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으나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것이 문학의 혁명을 바로 이끌어낸 것은 아니었다.

1) c.f. V.L. Saulnier: La littérature française du siècle romantique, 7^e édition revue. "Que sais-je?", 1964, p. U.F.

말하자면 문학의 분야에서는 18세기가 대혁명후에도 상당히 오래동안 존속했던 것이다. 물론 대혁명 기간중에도 티보네가 말한 것처럼 「대혁명의 문학」²⁾이 있기는 했으나 그것은 미라보, 당통 등에 의해서 대표되는 웅변, 데플랭에 의해 대표되는 저널리즘, 가요, 대중소설, 연극 등의 형태로 나타나서 대혁명의 상황을 대부분 피상적으로 반영하는데 그쳤고 후세에 남을만큼 문학적향기가 그윽한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은 드물었다. 왜냐하면 그만한 수준의 걸작품을 창조해낼만한 고도의 교양을 쌓은 인사들중의 많은 사람들이 공포정치의 와중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망명을 했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어 문학창작에 종사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세기초의 제 1제정시대까지만 해도 문학은 여전히 고전주의 내지 의고전주의적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 뿌리깊은 고전주의적 문학전통의 시원은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자면 이성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완전히 작용을 하게 하고 거기에 명석하고 판명하게 비치는 것만을 진(眞)으로 인정하여 착실하게 나아가자는 이른바 근대적인 합리주의적 사고의 방법론을 확립한 데카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보편적인 인간적 진실을 확립하고자 했던 고전주의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고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미적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도 이성이며 따라서 작품은 이성에 맞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기에 감성이나 상상력은 당연히 멸시된다. 이성이 내리는 비판에 견디기 위해서 작품은 모름지기 진실만을 담아야 한다. 진실은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것이다. 따라서 특이한 것이나 기괴한 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배척되어야 한다. 문학은 독자를 즐겁게 해주는 것인 동시에 교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교적 예의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속한 말이라든가, 감상하는 사람의 취미를 손상하게 하는 상스러운 사진이나 극단적인 행동 따위의 묘사는 마땅히 배척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작가들을 불후의 모범으로 삼아서 모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론을 가장 충실하고 또 완벽하게 구현한 라신느의 비극과 베르사이유궁전을 탄생시킴으로써 17세기에 일단 완성의 단계에 도달한 고전주의는 18세기에도 여전히 문학을 지배하고 있었다. 물론 문학의 내용에서는 작가들이나 사상가들의 관심이 인간의 내면 즉 심리나 성격의 관찰과 분석에서 이제는 퇴폐의 색채를 짙게 띄어가는 절대왕정의 사회체제라든가 그 정치 또는 풍속 쪽으로 옮겨가기는 했으나 문학정신과 표현양식에서는 고전주의 이론에 충실하여 여전히 고전주의를 모방하고 그 규칙을 금과옥조처럼 충실히 지키려는 자세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이제는 데카르트적인 비판적 이성이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외부세계 특히 정치와 사회 쪽으로 검토와 분석의 대상을 전환하고, 인간중심적인 자연은 점차 객관적인 자연으로 확대되면서 변질해갔고, 상대주의라

2) "La Révolution a eu une littérature révolutionnaire". Albert Thibaudet: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de 1789 à nos jours, 1936, Stock, p. 5.

든가 다양성의 주장의 영향을 받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미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회의가 짝트고 나아가서는 부정의 소리까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인간은 원래 무한히 진보할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화신에서 나온 진보사상이 서서히 지지를 얻어나감으로써 고전주의의 지위는 현저하게 실추하였다. 게다가 이성에 바탕을 합리주의는 자기완성을 추구해 나가면서 미학적으로 자기를 발현할 길을 스스로 좁혀버림으로써 고전주의는 그 창조력을 상당히 고갈시켜버리게 되어 볼테르의 운문이라든가 세니에의 시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7세기 전성기의 대가들의 걸작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른바 의고전주의로 타락해버렸다.

Ⅲ. 새로운 경향의 대두

이렇듯 고전주의적 진통이 위세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밑에서는 새로운 경향, 즉 감성존중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미 18세기초부터 비관정신의 이름으로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한편으로는 17세기말부터 18기초까지 계속된 신·구파 논쟁의 결과로 고대인들을 지나치게 찬양하는데 대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한 규칙을 설정하고 작품의 미를 이성의 척도로 측정하는데 대하여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볼테르는 그 규칙을 「목발」이라고 불렀고 디드로는 규칙때문에 예술은 관행(慣行)이 되어버린다고 불평했다. 그런데 이 비관정신 또한 데카르트적 합리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영국의 로크의 영향을 받아서 콩다약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에 맞서 일체의 인식을 감각에만 환원하는 철저한 감각설을 주장했고, 그래서 감성에 의한 비평을 내세우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750년 이후부터는 「철학」 내지 「기하학적정신」에 시(詩)가 질식하는 것에 대한 거센 반발이 표면화한다. 이성적인 타산의 가면이 벗겨지고 정념에 사로 잡혀 기뻐하거나 괴로와하는 적나라한 인간의 묘사가 디드로에 의해 권장되자 사람들은 더욱더 강한 정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리보가 「마리안드의 일생」으로 사랑의 미묘한 감정을 분석하고 아메 프레보가 소설 속에 감정의 마력을 묘사하여 고전주의의 이성에 의한 감정의 통제라는 윤리학이나 미학적법칙을 벗어나 감성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었다.

그러는 동안에 1725년경부터는 영문학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셰익스피어는 1760년 이전에 이미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필딩과 리처드슨의 소설도 소개되었다. 특히 리처드슨은 그의 소설 파밀러가 1742년에, 클라리사 할로우가 1751년에 번역됨으로써 큰 영향을 끼쳤으니 미장한 장면들에 대한 취미는 데투슈, 라 쇼세 등의 「최루희극」 속에서 계승 전개되어 불란서문학이 감상주의쪽으로 복귀할 수 있는 터전을 닦는데 이바지한다. 그 밖에도 시인 허베이의 「명상」이 1760년에, 그레이의 「묘반(墓畔)의 애가」가 1765년에, 영의 「탄식의 노래, 삶과 죽음과 영생에 대한 야상(夜想)」이 1769년에 번역 소개되었다. 이들 소설과

시는 혹은 서민적 현실을 묘사하고 혹은 감상이나 상상력이나 꿈을 풍부한 서정을 살려 노래함으로써 불란서독자들에게 고전주의와는 이질적인 문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하고, 루소 이전에 이미 감성에 호소하고 음침한 것에 대한 취향을 만들어내었다. 한편 맥 퍼슨이 수집했다고 하는 오시언의 시들이 1762년에서 1777년까지의 사이에 걸쳐 번역되고 「켈트인과 특히 고대 스칸디나비아인의 신화와 시의 기념비」가 1755년과 1756년에 소개되어 스칸디나비아의 풍경 그리고 신화를 싸고 있는 음침하고 우울한 신비를 고스란히 전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감성에 루소는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 「신(新)엘로이즈」, 「에밀」, 「고독한 산보자의 몽상」, 「고백」 등 그의 저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의 강렬한 자아와 서정성이며, 그가 전개한 사회관, 정치관, 윤리관, 교육관, 종교관은 모두가 그의 남달리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자아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는데, 그의 강렬한 자아와 사회가 충돌했을 때 그가 받게 된 박해와 거기에서 생기는 고독감, 그것을 달래기 위해 찾는 자연에 대한 동경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다니엘 모르네가 「감성의 잠자는 샘물을 갑자기 솟아나게 했다」³⁾고 평한 그의 「신엘로이즈」는 불란서문학에 개인주의와 자연의 감정을 뿌리박게 했다.

그런데 이미 1750년경부터 상류사회인사들 사이에 자연에 대한 취미가 점차 확산되어 유행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살롱에, 사교생활에 그리고 도시생활에 권태를 느끼기 시작하여 더 단순하고 덜 정교섬세한 생활을 동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성의 엄격한 통제하에 완벽한 기하학적 균형미를 갖추도록 설계된 불란서식정원을 기피하고 전원의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모방한 영국식정원을 애호한다.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한 자연에 대한 애정에 루소의 「신엘로이즈」가 불을 지름으로써 걸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여행을 하고 앞다투어 스웬스를 찾고, 산, 호수, 바닷가를 보고자한다. 황량한 자연, 인간의 심정에 호소하는 우수어린 자연을 애호하는 취향이 널리 전파된 것이다. 새로운 감동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평탄한 지형이나 평온한 자연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 속에 인위적으로라도 험한 요소를 넣어서 대조를 이루어 그림같은 효과를 얻고자 하여, 폐허나 부러진 원주(圓柱)를 찾거나 또는 정원에 배치하기에까지 이른다.

독일문학의 영향도 이러한 감성우위의 취향조성에 한몫 거든다. 영문학작품보다는 조금 늦게 게스너의 「목가」, 뷔르거의 발라드들이 소개되었으며 1776년에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번역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 희곡과 소설 그리고 시에서 무덤, 죽음, 폐허가 자주 등장하게 되고 우수는 절망으로 물든다. 루소도 이미 「신엘로이즈」에서 생 프뢰의 입을 빌어 「다감한 마음이란 하늘의 숙명적인 선물이로다!」⁴⁾ 하고 말했다. 이제 자연은

3) "Ainsi la Nouvelle Héloïse fit jaillir soudain les sources dormantes de la sensibilité." Daniel Mornet: Le romantisme en France au XVIII^e siècle. Slatkine Reprints, 1970, p.109.

4) (...) "que c'est un fatal présent du ciel qu'une âme sensible!" Jean-Jacques Rousseau: Julie ou la Nouvelle Héloïse, "Classiques Garnier," Eds Garnier Frères, 1960, p. 63.

놀라움이 가득차 있고, 사나우면서도 평화로우며, 어두우면서도 밝고, 사람에게 흥분과 우수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이 됨으로써 문학 속에서 연구와 표현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만이 소재로서 다루어지던 고전주의문학에서는 사람을 내면에서 다루었으나 이제 자연은 사람과 함께 작가의 주의를 나누어 갖게 됨으로써 독자들은 사람을 자연 속에서 보고, 사람을 외부에서 다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사랑, 몽상과 우수는 베르나르탱 드 생피에르에 의해서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감정의 이와 같은 변화를 더욱 촉진한 것은 불란서대혁명이었다.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대혁명시대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술에 보다는 행동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대혁명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은 그 후의 문학의 방향을 바꾸어놓는 큰 계기가 되었다. 혁명전의 구체제하에서 문학의 주요 독자층을 구성하던 귀족계급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혁명후에는 부르조아지 시민계급이 작품을 창조하는 작가로 혹은 그것을 수용 향유하는 독자로 대거 진출했다. 이렇게 해서 후에 고전주의문학의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칙에 대한 반항이라든가 민중속에 싹트는 서정성 내지 시민적현실 등을 묘사하는 감각을 가꿀 토양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몰락한 귀족들은 참담한 패배감을 맛보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없이 황망히 외국으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낯선 이국에서의 외로움에다 궁핍마저 겹치게 되면 하는수 없이 이국의 군대에 입대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것이 싫으면 귀족의 체면은 벗어던지고 화가나 음악교사 또는 불어교사, 심지어는 부인복이나 조화(造花) 장사로 나서서 호구지책을 세워야 했다. 이렇듯 참담한 체험을 하면서 그들은 의지할곳 없는 고독한 자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일조일석에 체제의 전복을 몰고 오게 한 조국의 문화전통에 대하여 깊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부르조아지의 경우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 대혁명은 일단 왕가와 귀족계급을 파멸에 몰아넣으면서 부르조아지와 평민을 사회의 표면에 부상시켰으나 부르조아지 내부에서도 섬세한 정신의 소유자는 금전이 지배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욕구불만에 싸이게 된다. 이들은 우울한 허탈의 감정속에서 현실세계의 배후에 있을 미지의 막연한 또하나의 세계를 동경하고 이유도 없이 흥분하고 열광에 빠져 한순간 현실과의 접촉이 끊어지면서 마치 허공을 나는듯 한 순간적인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고, 마음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절망의 더없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권태감, 인생에 대한 혐오, 비관주의로 빠지는 이른바 세기병으로 발전하게 된다.

다양하고 막연하나 감정의 표현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이러한 여러 경향들이 19세기초에는 이미 불란서사회에까지 널리 퍼져있었으나 1804년부터 나폴레옹의 제 1 제정이 시작되면서 나폴레옹이 매우 압제적인 태도로 문단을 대했기 때문에 그의 의향을 따르는 의고전주의의 군소작가들이 문단을 지배하게 되어 새로운 경향은 문학유파를 형성하지도 못했다. 새로운 문학의 창조를 위해서는 18세기의 루소의 뒤를 이어 스탈부인과 샤토브

리앙의 열성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문학에 혁신을 촉구하는 제 1성을 발한 것은 스탈부인이다. 「사회제도와의 관계에서 고찰한 문학론」(1800)에서 문학도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미를 이상으로 삼던 고전주의의 미학에 대립하여 상대성을 지적하고, 또 새 시대에는 새로운 문학 즉 상상력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문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1810년에 발매금지되었다가 1813년에 간행한 「독일론」에서는 불란서 사람들이 그때까지 경멸하던 독일 사람과 그들의 문학의 현상을 소개하고 그 우수성을 설파하면서 불란서의 고전주의가 그리스 로마의 문학을 이식하고 모방한 것인 반면에 게르만계의 북방문학은 민족의 정신 그 자체에서 탄생한 것이어서 「로망티크(낭만적)」라고 부른다고 하고 개인의 깊은 내면과 정열을 표현한 그 문학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함으로써 후의 낭만파 작가들에게 강력한 이론적인 지주를 제공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샤토브리앙은 「기독교 정수」(1802)에서 이성에 호소하지 않고 감성과 상상력에 호소해서 기독교의 효고를 위한 논증을 해나가면서 종교적인 감동과 중세 고딕예술의 우수성 및 그에 대한 애정을 화려한 색채와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미려한 문체로 엮어내어 낭만파 작가들에게 중세에 대한 취미를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개인적인 감정 내지 정열의 고백, 시인의 우수 따위 후에 낭만주의의 주제가 되는 것들을 표현함으로써 낭만주의의 직접적인 선구자가 된다. 또한 소설 「아탈라」(1801), 「르네」(1802)를 통해서 신세계 아메리카의 풍물을 소개함으로써 후에 낭만주의의 특징의 하나로 간주되는 이국취미를 나타내는 한편 미국으로 건너간 불란서청년 르네의 고독감과 권태감을 표현함으로써 낭만주의시대의 「세기병」적인 염세감을 그려냈다.

한편 세낭쿠르는 소설 「오베르만」에서 인간에게 따라다니는 고독감을 매우 지적인 수법으로 분석했고, 콩스탕도 소설 「아돌프」(1815)에서 사랑에 빠진 남자의 권태감과 여자의 불타는 정열을 묘사함으로써 감상적인 낭만파 문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결국 이들 세 소설가는 소설의 분야에서 낭만주의의 제 1세대의 몫을 해낸 셈이다.

이 작품들은 낭만파가 형성될 토대를 마련해주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는데 이에 질세라 외국의 중요한 작품과 문학론이 사방에서 속속 들어와 번역 소개됨으로써 고전주의 문학전통의 아성을 서서히 잠식하면서 낭만파 형성의 토대를 쌓는데 기여한다. 1809년에는 콩스탕이 쉴러의 「발렌타인」 3부작의 번안극을 발표하고 그 서문에서 독일연극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불란서연극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1813년에는 스웬스인 시스몽디의 「남구문학」이 발표되었다. 1814년에는 독일인 빌헬름 슐레겔의 「극예술과 문학에 관한 강의」가 번역되었다. 이어서 왕정복고 초기에는 영국인 월터 스코트의 역사소설과 바이런의 시가 소개되었다. 호반파의 시인들의 작품도 소개되었다. 독일 낭만파, 괴테도 물론 소개되었다. 스페인 무명시인들이 쓴 옛시의 집대성인 「로만셀로」도 소개되었다. 당시 문단의 주도권을 장악하

고 있던 의고전주의 유파의 작가들은 이런 경향을 경계하여 계속하여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1750년이래 태동해온 감성존중 및 고전주의 문학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점차 이렇게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1820년부터는 낭만주의 운동으로 전개된다.

종래의 문학사에서는 18세기 중반부터 1820년까지의 이런 경향을 가리켜 「전기낭만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낭만주의정신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후에 낭만주의의 특징으로 우리가 꼽는 것들과 테마가 이 시기에 이미 거의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학사학자들이 분류의 편의상 이 시기를 전기낭만주의로 구분하게 되면 일관된 낭만적 정신의 흐름이 인위적으로 끊길 위험마저 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기낭만주의라는 명칭으로 구분하는데 대하여 비판적이고 심지어 앙리 페르 같은 사람은 「전기낭만주의란 개념과 용어는 기만적이다」⁵⁾ 하고 주장한다.

Ⅳ. 낭만주의운동의 전개

이와같은 배경 속에서 낭만주의가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학의 지지자인 낭만파가 고전파를 상대로 격렬한 이론투쟁 이른바 낭만파논쟁을 전개해야 했다. 이 논쟁이 표면화되는 계기를 만든 것은 앞에서 말한 스탈부인의 「독일론」, 술레질의 「연극문학 강의」, 시스몽디의 「남구문학」의 출판이었다. 불란서는 젊어지는 원리를 외국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1814년에 스탈부인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코페의 그룹이 주가 된 진보파 인사들과 고전주의의 전통을 충실히 지킬 것을 주장한 저항파의 인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왕정복고시대 초기에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국문학작품의 번역 소개에 긴장하여 이를 견제 또는 저지함으로써 문단에서 세력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고전주의자들은 아카데미를 비롯하여 대학이라든가 교회 등을 본거지로 삼고 건전하고 고상한 취미를 고수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주로 「테바」지(紙)를 기관지로 삼아 전투태세를 갖추면서 한편으로는 「소시에테 데 본느 레트르」를 비롯한 단체들을 조직하여 보수세력 즉 카톨릭, 왕당파에 속하는 문인들을 규합하여 결속시켰다. 이들은 새로운 문학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세력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런데 이에 응수하는 낭만파는 이 시기에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작품은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입으로만 구호를 요란스럽게 부르짖고 있을 뿐이었다. 그 무렵에 이 논쟁에

5) "La notion et le terme de "préromantisme" sont fallacieux.", Henri M. Peyre: Qu'est-ce que le romantisme?, P.U.F., 1971, p.12. 한편 P.Barbérís, M. Baude도 초기 낭만주의자, 초기낭만주의라는 말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N'est-il pas préférable(…) de parler de premiers romantiques et d'un premier romantisme?) Pierre Abraham et Ronald Desné (sous la direction de): Manuel d'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Tome IV, 1789-1848, premier volume, 1972, Editions Sociales, p.122.

는 가담하지 않고 초연한 위치에 있던 라마르틴느의 「명상시집」이 1820년에 간행되어 문학사상으로는 이것이 낭만주의의 공식적인 원년(元年)으로 기록된다. 어쨌든 후에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대작가로 성장할 젊은 시인 작가는 아직도 모색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서로 정치적 종교적 견해에 차이가 있어 통합을 이루지 못했던 시기였다. 실제로 1820~30년에 낭만주의 논쟁에 관한 문제는 문단의 잡다한 파벌 사이에 존재하던 여러가지 복잡하게 얽힌 정치경향을 고려할 때에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두개의 뚜렷하게 다른 정치집단이 있었던 것이다. 그 하나는 보수주의자들의 그룹이었고 샤토브리앙은 「보수」 신문을 간행하고 그 대변자노릇을 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그룹은 자유주의자들의 모임이었고 그 주된 기관지는 「콩스티튜쇼넬」 신문이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낭만파의 문학에 호의를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런 문학에는 종교에 대한 확고부동한 경의라든가 고전주의자인 볼테르에게서부터 볼 수 있었던 불란서대혁명에 대한 혐오의 기미가 엿보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테바」지의 편집자들처럼 대단히 고전적인 취미를 가진 보수주의자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자유주의자들 중의 일부는 반대로 고전적전통에 호의를 보이고 있었다. 고전주의적 전통이 18세기의 철학적인 작품을 계승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한편으로는 낭만주의가 하고 있는 문학혁명을 불란서대혁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서 낭만주의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종류의 보수주의자들의 문학관은 고전주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어떤 부류의 자유주의자들의 문학관과 매우 접근해 있었고, 또 이와는 반대로 자유주의자들 중에는, 낭만주의에 희망을 건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자들 중의 어떤 사람들에게 대단히 접근하고 있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듯 정치적, 종교적 견해의 차이 때문에 분열하여 복잡한 파벌들을 형성하고는 있었으나 새로운 문학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낭만주의자와 자유주의적인 낭만주의자의 두 갈래로 구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1820년에 불과 18세였던 위고는 형 아벨 및 외젠와 함께 문학잡지 「콩세르바퇴르 리테레르」를 창간하고, 에빌 데샹의 살롱에서 비니, 라투슈, 수메 등과 사귀면서 최초의 「세나클」을 결성했다. 이들은 1819년말부터 1821년초까지 존속한 그 문학지에 기고하는 소그룹으로서, 표방하는 뚜렷한 주의주장도 지향하는 방향도 갖지 못한 상태여서 새로운 경향의 문학의 선구자인 샤토브리앙을 찬양하는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의 경향의 고전주의자들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들레클뤼즈의 살롱에 1822년경부터는 스탕달, 메리메, 앙페르 등 자유주의자들이 모여들었다. 1823년에는 문학잡지 「라 뒤즈 프랑세즈」를 거점으로 하여 세번째 세나클 즉 낭만주의를 반드는 젊은 문인 예술가의 모임이 형성되는데 여기에 위고형제의 「콩세르바퇴르 리테레르」에 기고하던 소그룹이 합류하고, 위고, 비니, 라마르틴느, 수메, 기로, 노디에 등 카톨릭 왕당파가 1823~24년에 데샹의 집에

서 모였다. 여기서는 문학작판단에 정치적인 고려가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문학이 감정을 주제로 다룸으로써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식에서는 성급한 개혁을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다. 1924년에는 보수적 낭만파의 기관지라 할 수 있는 「라 뤼즈 프랑세즈」가 폐간된 후 동인들은 마침 샤를르 노디에가 아르스날 도서관의 관장에 임명된 것을 계기로 그 도서관에서 자주 모이게 되었다. 동인들 중의 최연장자인 노디에가 카톨릭 왕당파인 젊은 동인들로 하여금 일요일마다 그 도서관에 모여 문학과 예술을 논하게 했는데 거기에 뒤마, 네르발, 고티에, 발자크, 화가인 들라크루아가 새로 가입하고 후에 생트 비브, 뤼세 등도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것을 특히 아르스날의 세나클 또는 제 1 세나클이라 부른다. 한편 이 동인의 태반은 1827년경부터 노트르담 데 샹 거리 11번지에 있던 위고의 집에 모여 다섯번째 세나클을 형성했다. 가장 진투적인 모임이었으며 1830년의 에르나니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자연소멸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특히 세나클이라고 부른다.

낭만파를 이렇게 보수파와 자유파로 양분한 대립은 정치적색채의 차이에서 온 것이지만 그것이 오래동안 문학적 태도의 대립으로도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예컨대 자유주의자들이 기고하는 「글로브」지는 쉴러의 소심한 모방자들에 대한 비난의 포문을 열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네 동인인 메리메가 쓴 「클라라 가젤」은 역시 그와 유사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비난이 아니라 칭찬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스탕달은 「라신느와 세익스피어」 제 2 부에서 라마르틴느의 몽상적인 시풍에 대해서, 그리고 위고와 비니에 대해서도 혹평을 하고 있어, 당시 낭만파의 양진영은 공동의 적인 고전주의자들을 공격하면서 같은 낭만주의 진영의 다른 분파에 대해서도 얼마나 적대행위를 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제를 영도자로 하는 아카데미의 낭만파에 대한 공격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 공격에 응수한 스탕달의 「라신느와 세익스피어」 제 2 부(1825)는 자유주의그룹의 승리였다.

다행히 이 두 파의 대립은 점차 해소해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전주의자들에 대한 자유주의그룹의 강력한 투쟁은 보수파인 아르스날 세나클 동인들의 공감을 사게 되었다. 한편 보수주의그룹도 국왕이 루이 18세에서 샤를르 10세로 바뀌면서 정부가 복고적으로 반동화하는 경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보이자 점차 야당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편 보수파의 거두였던 샤토브리앙이 자유주의쪽으로 전향하자 그의 추종자들도 그 뒤를 따랐고, 위고도 「글로브」지의 대담한 이론에 점차 동조하게 되었다. 이렇듯 여진이 무르익어가던 중에 통합을 실현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일이 있었다. 그것은 위고와 생트 비브의 만남이었다. 위고는 시집 「오드와 발라드」를 간행하여 시인으로서의 재능을 발휘하는 한편 그 서문에서 예술의 자유를 역설함으로써 새로운 문학의 주도적 이론가로서의 위치를 다지고 있었으며 위고보다 두살 아래인 생트 비브는 「글로브」지에서 유능한 청년비평가로서의